

하나님 경외 사상의 다양한 의미에 근거한 **אָרַא**의 한국어 번역 제안

이형원*

구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신앙적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 경외(**אָרַא**; **יְרֵאָה**) 사상이다. 고대 이스라엘의 다양한 신앙적 전통들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은 공히 하나님 경외 사상을 후손들에게 강조하여 가르쳤다. 예를 들어, 현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잠 1:7)고 가르쳤고, 제사장들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마련해 두신 복이 어찌 그리도 큰지요? 주님께서서는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십니다.”(『새번역』 시 31:19)라는 기도를 가르침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도전함과 아울러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들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예언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장려하며 그에 따른 신적인 복을 약속했다: “그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개역개정』 말 3:16).¹⁾

그런데 구약성경에서 강조되는 하나님 경외 사상의 기본이 되는 히브리어 동사 **אָרַא**(yare')는 이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 문맥적인 상황이나 더불어 사용되고 있는 다른 용어들, 그리고 이 동사를 포함하고 있는 구절이나 문단이 전해지고 있는 삶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들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역개정』, 『표준개정』, 그리고 『공동』에서는 **אָרַא** 동사를

*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 Seminary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침례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 hyunglee@gmail.com.

1) **אָרַא** 동사는 다른 품사 형태를 포함하여 맛소라 본문에서 436번이나 언급되고 있는데, 오경에서 95번, 예언서(전기, 후기 예언서)에서 176번, 그리고 성문서에서 164번 기록되고 있다: H. -P. Stähli, “**אָרַא**, yare’”, Ernst Jenni and Claus Westermann, eds., *Theological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vol. 2, Mark E. Biddle, trans.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Inc., 1997) (이하, *TLOT*), 569-570. 맛소라 본문에서 언약의 주제와 관련된 **יְרֵאָה**가 287번,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공의로운 삶을 원하신다는 주제와 연관된 **אָרַא** 동사와 다른 품사 형태들이 523번, 정의로운 삶과 관련된 **אָרַא**가 422번(동사 형태는 추가로 144번) 언급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 경외 사상은 구약성경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참조, *TLOT*, vol. 1, 256-266, vol. 2, 590-602, 1049-1062, vol. 3, 1392-1399.

주로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공경하다”라는 동사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개역개정』과 『표준개정』에서 אָנָה를 다르게 번역하고 있는 구절들도 많이 있다. 아울러 אָנָה를 “경외하다”, “두려워하다”를 비롯하여 다르게 번역한 경우들을 비교해 볼 때, 논리적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맞소라 본문에서 하나님 경외 사상을 소개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동사 אָנָה가 암시하고 있는 다양한 의미들을 이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 구문이나 문단의 문맥적 상황과 삶의 상황에 근거하여 살펴보고, 이러한 이해에 입각하여 אָנָה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제시할 수 있는 보다 합당한 번역들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해 연구자는 먼저 『개역개정』, 『표준개정』, 그리고 『공동』에서 אָנָה를 다르게 번역하고 있는 대표적인 구절들을 도표로 제시할 것이다.²⁾ 다음으로 אָנָה가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구절들에 대한 문맥적 연구와 아울러 그 구절들이 전해지고 있는 삶의 상황을 고려한 가운데 אָנָה가 함축하고 있는 다양한 의미들을 소개할 것이다. 그 후에 אָנָה를 한국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현재 한글 번역들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보다 더 합당한 번역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자의 이러한 시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한글 성경을 읽게 되는 독자들은 하나님 경외 사상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도 다양한 의미들을 이해함과 아울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실천에 옮기는 데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1. אָנָה의 다양한 번역들

연구자는 본 연구의 시발점을 NBDB, HALOT, TDOT, TLOT 사전, 그리고 *Englishman's Hebrew Concordance*의 אָנָה동사 항목에서 특히 주어가 하나님/여호와와 관련되는 구절들의 אָנָה동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정했다. 그 이유는 이 사전들이야말로 맞소라 본문에서 אָנָה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들을 망라하여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이다.³⁾ 이어서 연구자는 אָנָה가 『개역개정』과 『표준개정』, 그리고 『공동』에서

2) 연구자가 한글로 된 여러 성경 번역들 중에서 『개역개정』과 『표준개정』을 비교한 이유는 이 두 번역들이 성경 원문들에 충실하면서도 개신교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동』을 비교한 이유는 개신교 학자들과 가톨릭 학자들의 공동 번역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가톨릭 교회에서 널리 읽히고 있기 때문이다.

3) Francis Brown, ed., *The New Brown-Driver-Briggs-Gesenius Hebrew and English Lexicon with an Appendix Containing the Biblical Aramaic*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1994) (이하, NBDB), 431; Ludwig Koehler and Walter Baumgartner,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어떻게 번역되고 있는지 비교해보았다.⁴⁾ 그 결과로 세 번역 성경들에서 다르게 번역하고 있는 몇 부분들을 도표로 만들어보았다. 이 도표를 통해 독자들은 **אָרַא**라는 동사가 주로 “경외하다”, “두려워하다”로 번역되고 있으며, “무서워하다”, “섬기다”, “놀라다”, “위엄이 있다” 등으로 번역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연구자는 **אָרַא**가 『개역개정』과 『표준개정』, 그리고 『공동』에서 공히 “경외하다”나 “두려워하다”로 번역하고 있는 경우는 이 도표에서 소개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번역이 반드시 논리적으로 합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각 구절에 대한 문맥적, 사회적 상황에 관한 고려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가 하면, 구약성경의 동일한 책 안의 같은 맥락 속에서 사용된 **אָרַא**가 한 곳에서는 “경외하다”로 또 다른 곳에서는 “두려워하다”로 번역되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다(개역개정 출 1:17, 21).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필자는 **אָרַא**가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의미들을 문맥적 상황과 삶의 상황에 기초하여 소개하고, 이어서 **אָרַא**에 대한 보다 합당한 번역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표 1> 『개역개정』, 『표준개정』, 『공동』의 **אָרַא** 번역의 차이

구절	『개역개정』	『표준개정』	『공동』
창 22:12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네가 얼마나 나를 공경하는지 알았다
창 42:18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오	나도 하느님 두려운 줄 아는 사람이다
출 1:17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산파들은 하느님을 두려워하여
출 1:21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산파들이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출 14:31	백성이 여호와의 경외하며	주님을 두려워하고	야훼를 두려워하며

the Old Testament, vol II, M. E. J. Richardson trans. and ed., (New York: E. J. Brill, 1995), 432-433; H. F. Fuhs, “**אָרַא**, yare”, G. Johannes Botterweck and Helmer Ringgren, eds.,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David E. Green, trans., vol. 6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0) (이하, *TDOT*), 290-315; *TLOT*, vol. 2, 568-578; George V. Wigram, *The Englishman’s Hebrew Concordance of the Old Testament* (Padbody: Hendrickson Publishers, Inc., 1996), 559-561.

4) 연구자는 하나님/여호와와 관련하여 **אָרַא**가 사용되고 있는 구절들에 대한 한글 성경들을 번역하면서 여러 영어 성경 번역들도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אָרַא**를 “fear”로 번역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다음으로 “revere”로 번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절	『개역개정』	『표준개정』	『공동』
출 15:11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찬양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모두들 두려워 떨며 찬양을 드립니다
레 19:14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하느님 두려운 줄 알아라
신 14:23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야훼를 길이 공경해야 할 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신 28:58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	존엄한 이름 야훼를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삿 6:10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모리 사람의 신들은 섬기지 말아라	그들의 신들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삼상 12:14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주님을 두려워하여 그분만을 섬기며	야훼를 두려워하여 그를 섬기며
삼상 12:24	오직 그를 경외하며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야훼를 두려워하며
삼하 7:23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주님의 땅에서 놀라운 일을	당신께서는 두렵고 놀라운 일을 하셔서
왕하 17:7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며	다른 신들을 섬기며
왕하 17:32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들은 주님을 공경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야훼도 공경하였다
왕하 17:33	여호와도 경외하고	주님도 경외하면서	야훼를 공경하면서도
느 1:11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기꺼이 공경하는 종들이
느 7:2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느님 두려운 줄을 아는 사람
욥 1:1, 7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욥 37:22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엄찬 영광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느님의 빛나는 영광이
시 22:23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여라	야훼를 경외하는 사람들아, 찬미하여라

구절	『개역개정』	『표준개정』	『공동』
시 31:19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 두신 은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하여
시 33:8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온 땅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온 세상아, 야훼를 두려워하여라
시 33:18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시 34:9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를 섬겨라. 두려운 마음으로
시 45:4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무섭게 위세를 떨칠 것입니다	무섭게 위세를 떨치시라
시 55:19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웁니다
시 65:5	엄위하신 일	그 놀라운 행적	놀라운 일
시 66:3, 5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위하신지요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당신은 두려우신 분, 하신 일 놀랍습니다
시 68:35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대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다	두려워라, 당신의 성소에서 나오시는 하느님
시 76:7	주께서는 경외 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님, 주님은 두려우신 분, 주님께서 한 번 진노하시면, 누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 당신은 두려우신 분, 한번 분노를 터뜨리시면 누가 감히 당신 앞에 버티리이까?
시 102:15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야훼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시 103:11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경외하는 자에게는
시 103:17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시 139:14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하신 일의 놀라움
전 5:7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오직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만 알고 살라	하느님 두려운 줄만 알고 살아야 한다

구절	『개역개정』	『표준개정』	『공동』
전 7:18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느님 두려운 줄 알아야
전 12:13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지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하느님 두려운 줄 알아 그의 분부를 지키라는 말
사 64:2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 떨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 앞에서 떨 것입니다
렘 5:24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주 우리의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우리 하느님 야훼를 공경하자고 하여야 할 터인데
렘 10:7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가 야훼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렘 32:39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언제나 나를 경외하여	언제까지나 나를 공경하여
을 2:31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끔찍스럽고 크나큰 주의 날	야훼께서 거동하시는 날,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은 1:9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오	야훼를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습 2:11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주님이 무서운 분이심을 알게 될 것	야훼께서 세상의 모든 신을 맥 못쓰게 만드시리니
습 3:7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너만은 나를 두려워하고	너만은 나를 공경하려니
학 1:12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백성은 주님을 두려워하였다	야훼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말 2:5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가 나를 경외하도록 그와 언약을 맺었고, 그는 과연 나를 경외하며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였다	나를 두려워하며 내 이름을 어렵게 알아 나를 공경할 마음을 주었다
말 3:16	그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주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나를 공경하던 자들이... 나를 공경하고

2. **יָרָא**의 다양한 의미들

2.1. “두려워하다”는 의미의 **יָרָא**

서론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맞소리 본문에서 **יָרָא**라는 동사 어근과 관련된 단어가 436번 언급되고 있다. 그 중에서 333번이 동사 형태로 소개된다.⁵⁾ **יָרָא** 동사는 많은 경우 단순능동형(qal)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두려워하다”, “공경하다”, “예배하다”라는 의미 등을 지니고 있다.⁶⁾ 비록 여러 구절들에서 일상의 일반적인 환경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구약성서에서 **יָרָא**가 사용되고 있는 구절들의 거의 80% 이상이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의 특성도 독특한 상황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⁷⁾

יָרָא가 가장 기본적으로 ‘두려워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은 보편적인 이해이다.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일상적인 요소들도 다양하다는 점을 구약성경은 입증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는 낮선 도시에서 생활하는 두려움(창 19:30), 살인이 드러나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출 2:14), 연로한 자 앞에서 말하는 것의 두려움(욥 32:6), 맹세를 하거나 깨는 것에 대한 두려움(전 9:2; 삼상 14:26), 왕의 절대적 권위 앞에서의 두려움(단 1:10), 여행길을 떠날 때에 느끼는 두려움(전 12:5), 인간 관계에 있어서의 두려움(창 26:7; 31:31; 32:7, 11; 삼상 18:12 등), 전쟁의 위협이나 전쟁에서의 패배가 주는 두려움(출 14:10; 신 7:19; 수 9:24) 등이 포함된다.⁸⁾

연구자가 이 논문에서 주된 관심을 기울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 사상의 다양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기에 **יָרָא**가 사용되고 있는 구절들 중에서 특히 하나님이나 여호와와 관련된 구절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하나님/여호와의 임재나 현현도 사람에게 전인적인 두려움을 제공하곤 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가오셨을 때 두려워했고(창 3:10), 모세도 여호와께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셨을 때 두려워했다(출 3:6).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의 여호와의 현현에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신 5:5), 여호와의 현현을 경험하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는 것

5) H. F. Fuhs, “**יָרָא**, yare’”, 292.

6) Eugene H. Merrill, “**יָרָא**”,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 Exegesis*, vol. 2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7), 527.

7) Ibid.

8) Ibid., 528.

을 보며 두려워했다(출 34:20). NBDB에서는 אָנָּךְ가 פָּנֵי (… 앞에서, in front of)와 함께 사용될 때, 하나님/여호와와의 얼굴 앞에서 인간이 극한 두려움을 느끼며 서 있는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 “두려워하며/경외하며 서 있다”(stand in awe of)라고 번역하고 있다(출 9:30; 전 3:14; 8:12, 13).⁹⁾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들이나(창 20:8; 28:17),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삼하 6:9)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무엇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거역과 죄였다(민 14:9; 삼상 15:24).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죄를 범한 결과로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진노였기 때문이다(렘 26:19; 습 3:7; 말 3:5).

2.2. “존경하다” “공경하다”라는 의미의 אָנָּךְ

맛소라 본문에서 אָנָּךְ가 언급되는 구절들 중에서, 연관되는 목적어나 대상에 따라, אָנָּךְ가 꼭 “두려워하다”로 번역되기보다는 오히려 “존경하다”, “공경하다”, “존중하다”로 번역되는 것이 훨씬 적합한 경우들이 있다. 예를 들어, 『개역개정』의 레위기 19장 3절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로 번역되고 있지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부모를 두려워하라는 표현이나 경외하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부모를 공경하거나 존중하라는 표현을 익숙하게 사용하는 현실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번역이 더 무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אָנָּךְ는 그 대상이 하나님/여호와일 때에는 ‘경외하다’로 번역하고, 그 대상이 사람일 때에는 “공경하다”나 “존중하다”로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것이 좋을 것이다.¹⁰⁾ 스틸리(H. -P. Stähli)는 부모를 향한 אָנָּךְ를 “존경하는 가운데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¹¹⁾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는 אָנָּךְ가 아니라 כָּבֵד가 사용되고 있는데 두 단어가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특히 후자는 공경하는 대상의 권리나 연로함에 근거하여 우위나 우월성을 인정해주는 것을 강조한다.¹²⁾ 부모 공

9) NBDB, 431.

10) 칼란드(Earl S. Kalland)는 אָנָּךְ를 “최고의 공경의 표현 (expression of highest reverence)”으로 설명하지만, 하나님/여호자를 대상으로 할 때에는 여전히 제한적인 표현으로 여겨진다. Earl S. Kalland, et al., *Deuteronomy, Joshua, Judges, Ruth, 1 & 2 Samuel,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vol. 3 (Grand Rapids: Zondervan, 1992), 85-86.

11) H. -P. Stähli, “אָנָּךְ, yare”, 571. 스틸리는 이 동사의 의미가 “to hold in esteem, 존경하다, 높이 평가하다”라는 것보다는 약화된 것으로 평가하지만, 근거가 희박한 주장으로 평가된다.

경과 관련한 두 구절들이 비록 다른 동사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여기에 사용된 두 동사들은 모두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요구할 때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기에 단순히 “순종하다”는 의미를 뛰어넘어 “높이 평가하다”, “존경심을 보이다”, “영광을 돌리고 높다”, “돌보고 사랑을 보이다”, “공경하다” 등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들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¹³⁾

『개역개정』, 『표준개정』, 그리고 『공동』은 여호수아서 4장 14절에서 공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했다고 번역하고 있다. 그런데 나라를 다스리는 국가적 지도자에 대해 백성들이 일차적으로 가지는 마음이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이라고 본다면 “두려워하다”는 부정적인 의미의 번역보다는 “공경하다”는 긍정적인 의미의 번역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¹⁴⁾ 이러한 번역은 현재 우리 사회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더욱 공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국민 한 사람의 인권이 소중하게 간주되어 공권력을 지닌 자라고 해서 함부로 개인의 인권을 유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국가적 지도자들에 대해 자신의 소신 있는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지도자를 두려워하라는 표현보다는 ‘공경하라, 존경하라’는 표현이 독자들에게 훨씬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솔로몬 왕이 창기 두 여자와 아들들에 대하여 내려준 지혜로운 재판에 관하여 백성들이 그를 두려워했다는 열왕기상 3장 28절의 번역도 백성들이 솔로몬 왕을 공경하게 되었다는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라고 본다. 판펠트(M. V. Van Pelt)와 카이저(Walter C. Kaiser, Jr.)는 אָנָה를 “공경하다”, “존경하다”로 번역하는 것이 “공포를 느끼다”나 “예배드리다”라는 의미보다 약화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연구자는 이 문단에서 언급한 구절들의 문맥적인 면이나 대상을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한 의미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¹⁵⁾

레위기 19장 30절에는 אָנָה의 또 다른 대상이 언급되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성소이다. 그러므로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는 『개역개정』의 번역은 “내 성소를 두려워하라”나 “내 성소를 경외하라”는 번역이나 “내 성소를 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번역보다 훨씬 문맥적으로 합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성소라는 사물은 경외나 두려움 혹은 공경이나 존경의 대상이

12) John I. Durham, *Exodus*, Word Biblical Commentary (Waco: Word Books, Publisher, 1987), 291.

13) Brevard S. Childs, *Exodus*, Old Testament Library (London: SCM Press, 1974), 418-419.

14) Eugene H. Merrill, “אָנָה”, 529.

15) Ibid.

기보다는 존귀하게 간주되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2.3. “경외하다”는 의미의 **אָרַת**

이 시점에서 논의하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하나 있다. 그것은 한글 번역 성경들이 **אָרַת**를 주로 하나님/여호와를 “두려워하다”나 “경외하다”로 번역하고 있지만, 문맥적으로나 사회적 상황에 준하여 볼 때 하나님의 임재나 현현 앞에서, 혹은 죄를 짓거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소개되는 상황이기에 “두려워하다”라고 반드시 번역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경외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국어의 통상적 의미로 볼 때, “두려워하다”는 단어가 그 자체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뉘앙스를 함축하고 있지만, “경외하다”는 단어가 긍정적인 뉘앙스를 더욱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이프성경사전』에 의하면, “경외하다”의 기본 의미는 “두려워하다”, “떨다”이다. 그렇지만 “이는 무서운 존재에 대한 공포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곧 경건한 공경심을 일컫는다. 따라서 ‘경외하다’는 말에는 ‘좋은 마음 곧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느 7:2).”¹⁶⁾ 그러므로 하나님을 주어나 목적어로 하여 **אָרַת**가 사용되는 경우들에 있어서 문맥적인 상황이나 삶의 상황이 반드시 “두려워하다”로 번역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경외하다”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אָרַת가 하나님을 주어나 목적어로 사용하고 있을 때 암시할 수 있는 두려움의 다양함에 관해 여러 학자들이 논의해왔다. 하나님 경외 사상에 관해 일찍이 깊은 연구를 시도한 오토(Rudolf Otto)는 『성스러움의 의미』에서 하나님이라는 초월적인 존재야말로 인간이 논리적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누멘적인’(numinous) 대상, 다시 말하여 ‘두렵고 신비로운’(mysterium tremendum) 존재가 된다고 보았다.¹⁷⁾ 그는 이러한 두렵고 신비로운 존재인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들이 보이는 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반응들을 두려워하고(전율: tremendum), 압도당하고(위압성: tremenda majestas), 활력을 느

16) 『라이프 성경사전』, “경외하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390236&cid=50762&categoryId=51387>

17) Rudolf Otto, 『성스러움의 의미』, 김희성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87), 65. 오토의 이 책은 독일어로 1917년에 처음 출판되었다. 오토가 사용한 누멘적이란 용어는 종교에 있어서 존재하는 “명확한 개념적 이해와 언어적 표현을 초월하는 어떤 비합리적 요소”를 뜻하는데, 그에게는 하나님이야말로 초월적이며, 인간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누멘적인 존재이다(11쪽).

끼고(energie), 찬송하게 되고, 매혹당하게 되고(fascinans), 어마어마함과 장엄함을 느끼게 되는 것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¹⁸⁾ 또한 롱맨(Tremper Longman III)도 하나님을 주어나 목적어로 하여 사용되고 있는 **אָרַח**가 내포하고 있는 두려움을 “부정적인 두려움”(negative fear)과 “긍정적인 두려움”(positive fear)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두려움이란 진정한 두려움이나 공포를 의미하며, 긍정적인 두려움이란 경외심, 예배 등을 뜻한다.¹⁹⁾ 스타인만(Andrew E. Steinmann)도 하나님 경외 사상의 긍정적인 측면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는 특히 잠정적인 삶과 영원한 삶을 위한 복을 제공하시며 백성들로 하여금 지혜롭게 살도록 이끄시는 천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효심(filial relationship to God)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았다.²⁰⁾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אָרַח**가 하나님/여호와와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는 경우의 문맥적 상황이나 삶의 상황, 하나님의 신비로운 현현이 아니거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거나 그로 말미암은 심판을 기대하는 상황이 아닐 때에는, 하나님/여호자를 “두려워하다”는 번역보다는 “경외하다”는 번역이 바람직할 것이다.

2.4. “예배를 드리다”라는 의미의 **אָרַח**

맛소라 본문에서 **אָרַח**는 예배와 관련된 상황에서도 자주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열왕기하 17장 27절부터 33절에 의하면 사마리아를 점령한 앗수르의 살메네셀 왕이 사마리아 안에 있는 여러 민족들로 하여금 공존하게 하면서 그들이 제각기 자기들의 신들을 만들어 섬기도록 허락했다. 그래서 여러 민족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하였다(32절). 그래서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다. 이렇게 제사와 예배가 강조되고 있는 문맥적 상황들을 고려한다면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אָרַח**는 “경외하다”나 “두려워하다”는 의미보다 “예배를 드리다”는 의미가 더욱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신명기

18) Ibid., 47-118.

19) Tremper Longman III, “Fear of the LORD”, Tremper Longman III and Peter Enns, eds.,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Wisdom, Poetry & Writings* (Downers Grove, IVP Academic, 2008), 201-205.

20) Andrew E. Steinmann, *Proverbs*, Concordia Commentary (Sain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2009), 53.

14장 23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제사 가운데 십일조를 드리는 상황이기에, 여기에서 언급되는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라는 구절의 “경외하다”는 단어를 “예배를 드리다”로 대체하는 것이 문맥상 합당하다고 본다.

ⲕⲓⲗⲓ가 예배적 상황을 암시하는 구절들에서 사용되는 경우들은 특히 시편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다(시 22:25; 25:14; 33:18; 34:7, 9; 145:19; 147:11). 예를 들면, 시편 22편 22절부터 25절은 수많은 주위 사람들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협을 경험하고 있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찬송하는 내용인데, 그 중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라는 노래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 “야곱의 모든 자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큰 회중 가운데서”,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등의 표현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래서 윌슨(Gerald H. Wilson)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를 “시편 기자의 동료 예배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²¹⁾ 특히 25절의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라는 구절은 다른 여러 곳에서 언급되는 “주를 경외하는 자”(ⲕⲓⲗⲓ ⲕⲓⲗⲓ; 시 15:4; 25:12, 14; 103:11, 13; 118:4)와 아울러 또 다른 변경된 구문들과 함께(시 31:19; 34:7; 61:5; 66:16)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도록 돕는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서 ⲕⲓⲗⲓ가 언급되는 경우에는 ⲕⲓⲗⲓ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번역하거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번역하는 것보다 대중 예배 상황에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33:18; 34:9, 11). 삶의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힘들어 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모인 이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제안은 그리 건설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시 33:8; 66:16; 99:3).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역사들을 선포하면서 그분의 신비로운 능력에 놀라하며 그분께 예배를 드리자는 제안이 예배자들에게 훨씬 호소력 있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 Gerald H. Wilson, *Psalms Volume 1*,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2002), 419.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하나로 간주되고 있는 시편 128편 1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노래하며, 4절부터 6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불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라고 언급하며, 국가적인 절기들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드는 순례자들을 축복하고 있다. 클리포드(Richard J. Clifford)도 1절과 4절에서 인클루시오(inclusio) 형식으로 소개되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께 순종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라고 해석하고 있다.²²⁾ 그러므로 이 시편에 언급되고 있는 **אָנָה**도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행위로 간주하여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시편에 속하는 시편 145편과 147편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자로 간주할 수 있는 타당성을 입증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145편 19절에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가 동의적 평행법을 이루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예배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임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편 147편 11절에서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라고 언급함으로써,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다름 아닌 예배 중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자라는 이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토가 언급한 바, 누멘적 대상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임재를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거나 예배 중에 회고하게 되었을 때 생겨나게 되는 활력감과 찬송,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느끼는 매료감과 경탄감 등이야말로 구약성서의 하나님 경외 사상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입증해준다.

אָנָה를 예배와의 연관성 속에서 번역하는 것의 당위성을 변호해주는 고대 근동 문헌들이 있기도 하다. 푸스(H. F. Fuhs)는 고대 이집트에서 구왕국의 피라미드 본문들로부터 신을 두려워하는 개념이 문자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신에게 예배를 드리거나 섬기는 것을 의미해 왔고,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신을 두려워하는 개념이 신을 “존경하며 대하고”,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행위로 이해되어 왔다는 점을 언급하

22) Richard J. Clifford, *Psalms 73-150*, Abingdon Old Testament Commentaries (Nashville: Abingdon Press, 2003), 242.

고 있다.²³⁾ 그가 직접 인용하고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문헌에 의하면, “신들은 평화롭고, 신을 두려워하는 것은 위대하고, 성전들은 자주 드나들게 되었다”라는 구절 속에서 “신을 두려워하는 것”은 문맥적으로 볼 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²⁴⁾ 또한 “신을 두려워하는 것은 번영을 가져오고, 제사는 생명을 회복시키며, 기도는 죄를 가려준다”는 구절 속에서도 신을 두려워하는 것은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²⁵⁾ 이러한 고대 근동 문헌들 속에 언급되는 “두려워하다”는 동사들도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상황 속에서 사용될 때 “예배를 드리다”로 이해되고 있었던 것처럼,²⁶⁾ 맛소라 본문에서 אָנָה가 사용되는 상황이 여호와/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라면 이 동사를 “예배를 드리다”로 번역하는 것이 본문에 언급되는 אָנָה의 실제적으로 의도된 의미를 독자들로 하여금 이해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25 “순종하다”라는 의미의 אָנָה

맛소라 본문에서 אָנָה가 “명령을 지키다”, “규례를 지키다” 등의 용어들과 병행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다. 예를 들어, 시편 119편 63절은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서, 주를 경외하는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를 동의적으로 간주할 수 있다. 신명기 5장 29절도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은 마음을 품어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라고 언급하고 있어서, 경외한다는 אָנָה가 실제적으로는 여호와께 “순종하다”는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신명기 6장 24절도 5장 29절과 유사한 명령과 약속을 제공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한 모든 규례를 지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여호와께서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약속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도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이 구절 속의 여호와

23) H. F. Fuhs, “אָנָה, yare”, 298-299.

24) Ibid., 299. 참고: Wolfram von Soden, *Akkadisches Handwörterbuch Unter Benutzung des lexikalischen Nachlasses von Bruno Meissner* (1868-1947), Band II: M-S. (Wiesbaden: Harrassowitz, 1972), 812 f.

25) Ibid.

26) 대표적으로 고대 이집트어 동사 *snd*와 아카드어 동사 *palahu*가 히브리어 אָנָה와 같은 의미를 지닌 것이다. H. F. Fuhs, “אָנָה, yare”, 298-299.

경외하기도 여호와께 순종하기로 간주할 수 있다.

메릴(Eugene H. Merrill)은 그의 신명기 주석에서 6장 24절과 관련하여 “경외한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요, 순종하는 것은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함으로써 이 문맥 속에서 **אָנָה**를 “순종한다”는 의미로 번역하는 것의 합당성을 입증해주고 있다.²⁷⁾ 이러한 이해는 신명기 8장 6절을 해석하는데도 관련될 수 있는데, “네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라는 구절은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에게 순종할지니라”로 번역하는 것이 문맥적으로 볼 때 더욱 실제적인 교훈을 제공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라고 언급하고 있는 신명기 13장 4절에도, “그를 경외하며”는 전후의 병행적 용어들을 고려할 때, “그에게 순종하며”로 번역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러울 수 있다.²⁸⁾ 그러므로 이러한 구절들의 경우에 **אָנָה**는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순종하다는 의미를 암시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명령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는 명령과 함께 언급되고 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를 온전하고 진실하게 섬기는 것이 같은 맥락의 명령인 것을 암시해준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께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²⁹⁾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생애의 절정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 2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본문 중에도 **אָנָה** 동사가 언급되고 있다: “...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까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12절). 그런데 이 구절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이 구절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에 대해 아브라함이 철저히 순종하는지를 시험하는 것이다. 노년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

27) Eugene H. Merrill, *Deuteronomy*, The New American Commentary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4), 175.

28) 푸스(Fuhs)는 신명기 5:29; 6:2; 8:6; 10:12, 20; 13:4 등에 언급되는 **אָנָה**가 모두 제의적인 상황에서 여호와를 충성스럽게 예배드리도록 요청하는 것과 연관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구절들에 병행적으로 소개되는 명령, 규례, 법도 등의 용어들과의 관계를 고려해볼 때, “순종하다”는 의미가 더욱 합당하게 보인다. *TDOT*, VI: 307-308. 대표적인 구절들을 소개한다면 신명기 4:10; 6:2, 24; 10:12; 17:19; 31:12, 13 등.

29) *New English Translation*은 **אָנָה**를 “여호와께 순종하라”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Contemporary English Version*은 이 구절을 예배 상황에서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라”로 번역하고 있다.

암아 자신에게 주어진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까지도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본 여호와 의 사자는 드디어 아브라함에 대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 **אָנָה** 동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일반적이면서도 어떤 면으로는 추상적인 의미로 이해되게 만드는 번역 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의 모습으로 강조하는 것으로 번역하는 것이 보다 합당할 것이다. *Dictionary of Biblical Imagery* (성서 이미지 사전)의 편집자들(Leland Ryken, James C. Wilhoit, Tremper Longman III)도 아브라함을 요셉과 욥과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 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했던 대표적인 인물로 소개하고 있다.³⁰⁾ 해밀턴 (Victor P. Hamilton)도 창세기 22장 12절에 언급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경외하기”를 “하나님께 헌신된”(committed to God) 모습으로 번역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드리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까지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순종”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³¹⁾ 또한 매튜(Kenneth A. Mathews)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경외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에 자극을 받아 나타나는 인간의 순종과 신뢰로 설명하고 있다.³²⁾

아이흐로트(Walther Eichrodt)는 구약성서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중심 사상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covenant)으로 이해했다. 이러한 전제에 근거하여 그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보편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두려움과 공포를 뛰어 넘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존경심 가득한 경외의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언약이라고 주장했다.³³⁾ 일반적으로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도리들을 언약으로 제시하신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편적인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존경과 경외와 섬김과 순종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이러한 언약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

30) Leland Ryken, James C. Wilhoit and Tremper Longman III, eds., *Dictionary of Biblical Imagery* (Downer Grove: InterVarsity Press, 1998), 278.

31) Victor P. Hamilton, *The Book of Genesis: Chapter 18-50*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5), 112.

32) Kenneth A. Mathews, *Genesis 11:27-50:26*, The New American Commentary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2005), 296.

33) Walther Eichrodt,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vol. 2, John Baker trans. (London: SCM Press, 1967), 271.

의하는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언약들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만들었다고 본다.³⁴⁾ 그러므로 아이호르트의 주장에 근거해본다면 구약성경 본문들 중에서 *אָרַח*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나 율법들을 준수하라고 명령하는 상황에서 언급된다면 그 때에는 *אָרַח*를 “순종하다”는 동사로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플랏(Siegfried Plath)도 히브리 성서에서 *אָרַח*가 사용된 여러 구절들을 연구한 결과 *אָרַח* 동사가 일반적인 두려움의 감정을 뛰어 넘어 다양한 의미들을 내포하는 의미론적인 발전들을 거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예배의 마음이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했다.³⁵⁾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경외한다는 개념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사용된 용어라고 간주하면서, 특히 신명기에서 이 용어가 하나님의 율법에 초점을 맞추고 백성들이 율법에 순종하도록 하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³⁶⁾ 그러므로 플랏의 견해도 *אָרַח*가 하나님의 언약이나 율법을 준행하도록 강조하는 상황의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을 때, 이 동사를 “순종하다”나 “지키다”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입증해준다.

34) Ibid., 272-276, 290. 참조, Etienne Ellis, “Reconsidering the fear of God in the wisdom literature of the Hebrew Bible in the light of Rudolf Otto’s *Das Heilige*”, *Old Testament Essays*, vol. 27, n.1. (2014), 87.

35) Etienne Ellis, “Reconsidering the fear of God,” 88. 참조, Siegfried Plath, *Furcht Gottes* (Stuttgart: Calwer Verlag, 1962), 122-124.

36) Ibid. 플랏의 뒤를 이어 베켈(Joachim Becker)도 하나님 경외 사상에 관한 심도 깊은 연구 결과를 보여주는 저서, *Gottesfurcht im Alten Testament* (구약성서에 나타나는 하나님 경외 사상, 1965)를 발간했다. 엘리스의 서평에 의하면, 그는 이 책에서 하나님 경외 사상에 관한 언어학적 분석을 시도한 결과 구약성서의 하나님 경외 사상의 용도를 세 범주로 분류했다(제사적, 도덕적, 규범적). 특히 그는 신명기적 사상을 이어받고 있는 구약성서의 여러 책들에서 하나님 경외 사상이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하는 데 기여했다고 보았다. 또한 하나님 경외 사상의 도덕적인 용도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에 따라 살도록 강조하는 것이요, 규범적인 용도란 바벨론 포로기 이후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이 권위를 가지게 되어 이전 시대보다 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을 준행하도록 만들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용도는 지혜 전승을 담고 있는 책들에서 주로 강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하나님 경외 사상의 다양한 용도들을 구약성서의 여러 책들을 중심으로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는데, 각 책에도 하나님 경외 사상의 다양한 용도들이 암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책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경외 사상의 용도들을 구분하고자 한다면, 신명기를 비롯하여 신명기적 역사서들에서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 경외 사상은 제사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요청하는 의도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순종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도록 요청하는 용도가 더 많다고 본다(신 4:10; 6:2; 10:12; 17:19; 31:12, 13). 그러므로 필자는 이 점에 있어서는 베켈보다는 플랏의 주장에 동의하게 된다. 참조, Joachim Becker, *Gottesfurcht Im Alten Testament* (Rome: Papstliches Bibelinstitut, 1965), 123-124, 160-161, 183, 209, 261, 282-283.

3. 결론

라겐(Kristin J. Lergen)은 “하나님 사랑에 있어서 두려움의 역할: 루터교인의 한 견해”라는 논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야말로 루터에게 있어서 십계명의 둘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까지 관통하는 강조점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³⁷⁾ 아울러 그녀는 루터교회의 신앙 교육서(catechism)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교훈과 두려워하라는 교훈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기에 이러한 아이러니가 제공할 수 있는 오해를 풀어주려고 시도하고 있다. 특히 그녀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두려움의 종류들을 가지고 살며(예를 들어, 경제적 어려움, 직장 찾기의 어려움, 실직 등에 대한 두려움, 적들에 대한 두려움, 타자들에 대한 두려움 등), 또한 세속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에 관해 호의적으로 바라보도록 권유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제안이 호소력 있게 다가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가르침은 하나님을 존중하거나 존경하라는 가르침으로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³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루터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을 존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야말로 하나님을 “절대적인 타자”(Wholly Other)로 인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전폭적으로 의존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진노 속에 내재하고 있는 약한 이웃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들을 위해 용기 있는 행동들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가르침을 계속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³⁹⁾

라겐의 논문은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경외 사상이 너무 난해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다. 다시 말하여, 현대의 교회와 사회에 있어서 하나님/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용어는 신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신학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그들의 신학적 심오한 지식을 교인

37) Kristin Johnson Lergen, “The Role of Fear in Our Love of God: A Lutheran Perspective”, *Dialog: A Journal of Theology*, vol. 50, n. 1 (2011), 27. 필자는 라겐의 논문 제목과 내용에서 거듭 언급되고 있는 “fear of God”을 한국어로 번역함에 있어서 두려움으로 번역할 것인지 경외함으로 번역할 것인지를 놓고 심사숙고하게 되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두려움으로 번역하기로 했는데, 그 이유는 라겐의 논문에서 주로 강조하고 있는 바가 하나님의 초월자로서의 임재, 절대적인 능력, 그리고 거룩한 진노 앞에서 인간들이 느끼게 되는 두려움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38) *Ibid.*, 29-31.

39) *Ibid.*, 31-34.

들에게 드러내는 데 사용하지만 교인들의 삶에는 전혀 감동이나 실제적인 교훈을 제공하지 못하는 하나의 신학적 진부한 표현(theological jargon/cliche)으로 간주되고 있거나 그러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다 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용어는 현대 사회와 교회 속에서 그 의미가 너무 노화되어 그 실제적인 의미가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난해함이나 오해의 소지를 해소시켜주기 위해 누구보다도 먼저 성경 번역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필자가 이 글을 통해서 히브리어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 경외 사상이 문맥적 상황이나 삶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들로 이해될 수 있고 또 다양하게 번역되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하려 한 것도 이러한 취지에 입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도의 결과로 성경의 독자들이 하나님 경외 사상에 대해 보다 다각적이고도 현실감 있는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번역 시도에 대해 어떤 이들은 **אָנְדֶרְבַּאָרְט**라는 단어가 지니고 있는 독특한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 단어를 번역에서는 그대로 두고 주석에서 다양한 의미들을 제시해주는 것을 제안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는 최선의 번역이란 독자들로 하여금 본문의 의미를 가장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본문의 교훈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אָנְדֶרְבַּאָרְט**의 다양한 의미들을 번역에서부터 고려하는 것이 번역자들의 책임이라고 본다.

연구자가 이 글에서 논의한 바들을 중심으로 하여 **אָנְדֶרְבַּאָרְט**의 한글 번역을 위한 일반적인 원칙들을 제안한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1) **אָנְדֶרְבַּאָרְט**가 하나님/여호와와의 임재나 신비로운 현현을 소개하는 상황이 나 인간이 하나님/여호와 앞에서 죄를 범한 상황,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언급되는 상황에서 사용될 때에는 **אָנְדֶרְבַּאָרְט**를 “두려워하다”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 2) **אָנְדֶרְבַּאָרְט**가 그 목적어나 대상을 인간으로 삼을 때에는 **אָנְדֶרְבַּאָרְט**를 “존경하다”나 “공경하다”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 3) **אָנְדֶרְבַּאָרְט**가 1)에서 언급한 상황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하나님/여호와를 주어나 목적으로 삼게 되는 상황에서는 **אָנְדֶרְבַּאָרְט**를 “경외하다”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 4) **אָנְדֶרְבַּאָרְט**가 하나님/여호와께 제사나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서 사용될 때

에는 אָנִי를 “예배를 드리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 5) אָנִי가 하나님/여호와와 울법이나 계명을 지키도록 명령하는 구절이나 문맥에서 사용될 때에는 אָנִי를 “순종하다”나 “지키다”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끝으로 연구자가 제안한 이러한 원칙에 준하여, 히브리어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여호와를 주어나 목적으로 하여 소개되고 있는 구절들 중에서 『개역개정』, 『표준개정』, 그리고 『공동』의 번역들을 비교하여 새롭게 제안하고자 하는 번역들을 도표화시켜 본다면 아래와 같이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연구자는 이 도표에서 연구자가 이 글의 서론 부분에서 언급했던 『개역개정』, 『표준개정』, 『공동』의 차이들 중에서 연구자가 선호하게 되는 번역을 포함하여 소개하게 될 것이다.

<표 2> 연구자가 제안하고자 하는 אָנִי의 번역

창 22:12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줄을 아노라
창 42:18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출 1:17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출 1:21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출 14:31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출 15:11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레 19:3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레 19:14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레 19:30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신 5:29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순종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신 6:2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신 13:4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순종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신 14:23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며 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 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신 17:19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순종하 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 이라
신 31:12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 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수 4:14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존경하기를 모세를 존경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수 24:14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께 순종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 로 그를 섬기라
삿 6:10	땅의 신들을 예배하지 말라
삼상 12:14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순종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 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삼하 7:23	주의 땅에서 놀라운 일을
왕상 3:28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존경 하였으니
왕하 17:7	또 다른 신들을 섬기며
왕하 17:32	그들이 또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며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왕하 17:35, 37, 38	다른 신을 예배하지 말며
느 1:11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시 22:23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시 22:25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께 <u>예배를 드리는</u>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갓으리이다
시 25:12	여호와께 <u>예배를 드리는</u>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 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시 25:14	여호와와 친밀하심이 <u>그에게 예배를 드리는</u> 자들에게 있 음이여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시 31:19	주께 <u>예배를 드리는</u>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시 33:8	온 땅은 여호와를 <u>경외하며</u>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시 33:18	여호와와 <u>그에게 예배를 드리는</u>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시 34:9	너희 성도들이 여호와께 <u>예배를 드리라</u> <u>그에게 예배를 드리는</u>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시 66:16	하나님께 <u>예배를 드리는</u>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 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 다
시 76:7	주께서는 <u>두려우신 분</u>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시 99:3	주의 크고 <u>놀라운</u>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 다
시 102:15	여호와와 이름의 경외하며
시 103:11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시 128:1	여호와께 <u>예배를 드리며</u>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 도다
시 128:4	여호와께 <u>예배를 드리는</u>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시 145:19	그는 자기에게 <u>예배를 드리는</u>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시 147:11	여호와와 자기에게 <u>예배를 드리는</u>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 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전 5:7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전 7:18	하나님을 <u>두려워하는</u> 자

사 64:2	주 앞에서 <u>두려워하게</u> 하옵소서
렘 5:24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렘 10:7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단 9:4	크시고 <u>놀라우신</u>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욘 1:9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습 3:7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주제어> (Keywords)

하나님 경외, 성경적 두려움, 순종, 예배, 언약.

The Fear of God, Biblical Fear, Obedience, Worship, Covenant.

(투고 일자: 2015년 7월 31일, 심사 일자: 2015년 8월 28일, 게재 확정 일자: 2015년 9월 20일)

<참고문헌>(References)

- Bevere, John,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한상 역, 서울: 크레도 미션, 1999.
- Otto, Rudolf, 『聖스러움의 意味』, 김희성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62.
- Becker, Joachim, *Gottesfurcht Im Alten Testament*, Rome: Papstliches Bibelinstitut, 1965.
- Blocher, Henri, “The Fear of the Lord As the ‘Principle’ of Wisdom”, *Tyndale Bulletin* 28 (1977), 3-28.
- Botterweck, G. Johannes and Ringgren, Helmer, eds.,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vol. 6, David E. Green, trans.,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0.
- Brown, Francis, Driver, S. R., and Briggs, Charles A., *The New Brown-Driver-Briggs-Gesenius Hebrew and English Lexicon with an Appendix Containing the Biblical Aramaic*,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1994.
- Childs, Brevard, *Exodus*, Old Testament Library, London: SCM Press, 1974.
- Cilfford, Richard J., *Psalms 73-150*, Abingdon Old Testament Commentaries, Nashville: Abingdon Press, 2003.
- Cline, David, “‘The Fear of the Lord Is Wisdom’(Job 28:28): A Semantic and Contextual Study”, Ellen van Wolde, ed., *Job 28: Cognition in Context*, Leiden: Koninklijke Brill, 2003.
- Downs, Perry G., “What Ever Happened to the Fear of God?”, *Christian Education Journal* (2004), 152-157.
- Durham, John I., *Exodus*, Word Biblical Commentary, Waco: Word Books, Publisher, 1987.
- Eichrodt, Walther,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vol. 2, London: SCM Press, 1967.
- Ellis, Etienne, “Reconsidering the Fear of God in the Wisdom Literature of the Hebrew Bible in the Light of Rudolf Otto’s *Das Heilige*”, *Old Testament Essays* 27:1 (2014), 82-99.
- Fuhs, H. F., “אָרֶא, yare”, G. Johannes Botterweck and Helmer Ringgren, eds.,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David E. Green, trans., vol. 6,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0, 290-315.
- Hamilton, Victor P., *The Book of Genesis: Chapter 18-50*,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5.

- Kalland, Earl S. et al., *Deuteronomy, Joshua, Judges, Ruth, 1 & 2 Samuel*,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vol. 3, Grand Rapids: Zondervan, 1992.
- Koehler, Ludwig and Baumgartner, Walter,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vol II*, New York: E. J. Brill, 1995, 432-433.
- Largen, Kristin Johnson, "The Role of Fear in Our Love of God: A Lutheran Perspective", *Dialog: A Journal of Theology* 50, n. 1 (2011), 26-36.
- Longman III, Tremper, "Fear of the LORD",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Wisdom, Poetry & Writings*, Downers Grove: IVP Academic, 2008, 201-205.
- Mathews, Kenneth A., *Genesis 11:27-50:26*, The New American Commentary, Nashville: Braodman & Holman Publishers, 2005.
- Merrill, Eugene H., *Deuteronomy*, The New American Commentary,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4.
- Merrill, Eugene H., "יָרֵא",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 Exegesis*, vol. 2,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7, 527-535.
- Ryken, Leland, Wilhoit, James C., and Longman III, Tremper, eds., *Dictionary of Biblical Imagery*, Downer Grove: InterVarsity Press, 1998.
- Sakenfeld, K. Doob, ed., *The New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vol. 2, Nashville: Abingdon Press, 2007.
- Stähli, H. -P., "יָרֵא, yare'", *Theological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vol. 2,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Inc., 1997, 568-578.
- Steinmann, Andrew E., *Proverbs*, Concordia Commentary, Sain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2009.
- VanGemeren, Willem A., e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 Exegesis*, vol. 2,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7.
- Wigram, George V. *The Englishman's Hebrew Concordance of the Old Testament* Padbody: Hendrickson Publishers, Inc., 1996.
- Wilson, Gerald H., *Pslams Volume 1*,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2002.

<Abstract>

A Proposal of the Korean Translation of יָרָא (yare') Based on the Various Meanings of the Concept of the Fear of God

Hyung Won Lee
(Korea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One of the most important theological concepts in the Old Testament is the concept of “the fear of God.” Leaders of various theological traditions in ancient Israel, such as wise men, priests and prophets taught and emphasized the God-fearing life to the people of Israel (Prov 1:7; Psa 31:19; Mal 3:16).

The Hebrew verb יָרָא (yare'), which is the basic verb for the concept of the fear of God, contains diverse meanings according to the social and literary contexts in which the verb is used. However, Korean translations of this verb convey rather limited meanings by using mostly the words “fear” and “stand in aw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firstly, to find out various meanings of יָרָא according to the social and literary contexts in which the verb is used. Secondly, it is to propose some of the basic principles with which one can translate the verb יָרָא in the Hebrew Old Testament into the Korean language. Finally, it is to propose a better Korean translation of יָרָא for the specific verses in which the verb is used in the Old Testament. By accomplishing these purposes, the writer of this paper hopes to offer not only practical understandings of the concept of the fear of God for Korean Christians, but also better Korean Bible translations of the verb יָרָא.

Some of the basic principles with which one can translate the verb יָרָא into the Korean language are as follows:

1) When the verb יָרָא is used in the context of God’s divine appearance or in the context of God’s judgment and wrath caused by people’s sin and rebellion, it can be translated as “fear.”

2) When the verb יָרָא is used in the context in which the object becomes people, it can be translated as “respect” or “honor.”

3) When the verb יָרָא is used in the normal context other than in principle 1), it can be translated as “stand in awe.”

4) When the verb **סָבַח** is used in the context of worship and sacrifices, it can be translated as “worship.”

5) When the verb **סָבַח** is used in relation to the words, commands, laws and statutes of God, it can be translated as “obey.”

In the beginning section of this paper, the writer offers a diagram in which the different translations of the verb **סָבַח** between New Korean Revised Version and Revised New Korean Standard Version are shown. At the final section of the conclusion, the writer proposes a better translation of the verb **סָבַח** after a close study of the social and literary contexts of each verses in which the verb is used.